

바른 시각을 유지함 ☹️

한 잔의 커피에는 사방의 집들을 40cm 두께로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수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량의 수분이 얇게 퍼지면 시야를 온통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뜩 낀 안개가 길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당황하면서 안개위에 태양빛이 안개를 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개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월버포스는

"현실의 벽은 당장 직접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보다 높아 보이게 마련이고 그래서 문제와 근심은 우리의 현실에 마치 안개처럼 작용을 하고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처럼 모든 것을 30초만에 해결하려고 허둥대다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당황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돌발 사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실 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지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질은 안개에 가려 갈 길이 막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실패케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어떤 문제건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 임을 뚜렷이 드러내시려고 마련하신 기회입니다.

<영적 습관 52/루이스 플라우>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